

- 녹취록 -

프랑스공산당(PCF)

발표 : 미셸 뒤푸(Michel Duffour) 프랑스공산당 전부대표
 토론 : 이상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김대성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이채연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한호석 미주 통일학연구소 소장
 조덕원 21세기코리아연구소 소장
 사회 : 황혜로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뒤푸 : 나는 프랑스공산당 전부대표였으며 파리 서부지역 오프센느지역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또, 리오넬 조스팽총리 당시 문화부 산하 지방정치분권부 장관을 지냈다.

사회당과 비견될 정책 부재와 육체노동자들의 약화로 공산당 쇠퇴

프랑스공산당은 역사와 전통이 깊기 때문에 우리 당에 대해 말하자면 대단히 복잡하고 긴 설명이 되겠지만 가능한 간단하게 말하겠다.

과거 강한 역량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공산당이 현재는 그 역량이 크게 약화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러나 프랑스공산당은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는 당이다.

1920년 수많은 정당이 창당되었는데 프랑스공산당도 이 때 창당됐다. 1920년부터 1935년까지 15년간 공산당으로서 공산주의활동은 많이 벌였지만 선거에서 의원이 많이 선출되지는 않았다. 1936년부터 1947년까지, 위와 동일하게 11년간은 프랑스공산당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선거에서 많은 의원이 선출되었다. 즉 선거정치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우리 당의 기본이념과 창립의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파리로뮌이라 할 수 있다. 1940년대에는 반파시즘운동과 인민전선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며 프랑스 레지스탕스운동을 이끈 대표적이고 저력있는 당이다. 그 성과로서 2차 대전 후 35%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프랑스공산당은 1978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공산당과 함께 서부유럽에서 공산당진영에서 가장 힘 있는 당으로서 20%의 국민적 득표율과 지지율을 유지했다. 프랑스공산당은 이탈리아공산당과 함께 유럽을 대표하는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공산당의 지지율과 역량이 크게 축소됐고 쇠약해졌다. 그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번째는 공산당이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대립할 수 있는 정치노선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야 했는데 사회당과 구별되고 비견될 수 있는 주장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탄생과 성장으로 인해서 점점 규모가 작아지고 쇠약해져가는 노동계급의 힘이 줄어들면서 공산당

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즉,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기술자층이 두터워지고 우리의 지지계급 즉 철강, 탄광 분야에서 일하는 육체적 노동자층이 약화됐고 우리의 지지층도 약화됐다.

결국 1981년 총선에서 공산당이 사실상 만들고 이끌어온 민주자유화물결이 사회당의 주요노선으로 인식되면서 프랑공산당은 국민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갔다. 특히 우리 지지자들 대부분이 탄광노동자들이었는데 수많은 탄광들이 문을 닫으면서 주요지지자들을 잃었고 선거에서 대실패를 했다.

우리 공산당은 이전보다 세력이 줄어들었지만 소멸하지 않았고 영원히 남을 것이 분명하다. 현재에도 옛 공산당 지지자들이 상당수 있고 요즘 젊은층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 공산당지지자였던 이들이 많다. 튀니지혁명에서 보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축제에 참여한다. 공산당에 대한 지지가 꼭 옛날 일만은 아니다.

모두 다 알다시피 소련의 붕괴후 소련공산주의이념이 프랑스에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현재까지 계승되지 못하지만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인텔리들은 모두들 자신의 개인적인 이념은 공산주의라 말할 것이다. 피카소, 아라곤, 퀴리부인 모두 공산주의자였다.

좌파의 단결로 유럽헌법반대운동 승리, 유럽의회선거는 아쉬워

우리는 레지스탕스 즉 저항운동을 근저에 깔고 있는 정당이다. 같은 좌파이지만 사회당은 변화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데서 근본적으로 프랑공산당과 다르다. 공산당은 유럽의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사회당은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을 동의하는 등 이를 공산당처럼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2005년 유럽헌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유럽통합반대를 국민들도 지지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2005년 유럽헌법 반대투표를 56%의 지지율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의 노력과 운동의 결과다. 사회당은 유럽헌법을 지지하는, 좌파정당으로서의 모순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다. 당시 사회당 일부와 다른 좌파정당들이 연합해서 이 운동을 벌였고 이 결과가 우리 당의 노력에 대한 성공적인 결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2005년 당시 유럽헌법반대운동의 성공을 교훈삼아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도 유럽통합과 유럽헌법을 반대하는 주요정책을 내세우면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좌파세력의 단결을 통해 성과를 얻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는 흡족한 결과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나마 유럽의회 의석 몇자리를 더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만족한다.

공산당 지역장악을 통해 중앙권력진출 정책 마련

내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2개의 적, 2개의 과제가 있다. 이 중 첫번째 적은 당연히 우파다. 우파는 2004년 지방선거에서 실패했다. 우파는 이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 일종의 2004년의 보복작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그에 대응해야 한다. 두번째 적은 사회당이다. 사회당이 선거승리를 위해 공산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

프랑스는 22개의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20개지역의 대표가 좌파다. 이중 18개지방정부의 행정부에 공산당이 참여하고 있다. 그 의지는 그 지방에서 공산당의원들이 흡족한 결과를 보여줬다는 것이며 그만큼 공산당의 정치노선이 지역을 잘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공산당의 정치노선인, 반신자유주의노선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즉 대선이나 총선에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다.

좌파전선은 지방선거, 나아가 총선, 대선까지 가야

현재 지방선거의 당선자들은 대부분 좌파다. 그 좌파가 주장하는 정책은 반자본주의이다. 그러나 좌파인 사회당은 반자본주의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모순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좌파는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계속 성공했다. 그러니 이것을 계속하자’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한다. 다만 우리는 사회당의 모순점을 많이 비판하지만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입장과는 약간 다르다. 우리는 NPA가 사회당이 절대 대화가 안 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반대한다.

유럽헌법에서 사회당의 일부가 공산당노선을 찬성했고 그들과 손을 잡아 그 결과 유럽헌법찬반투표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사회당의 일부가 우리 당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진다면 사회당의 일부와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이 점이 NPA와 다른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전선을 더 확대해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대선과 총선까지 좌파전선을 유지하지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 것이 내년 3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우리 당의 두번째 과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초래된 경제위기

경제위기에 대해 말하면, 현재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자본주의체제가 초래한 위기이며 세계화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나온 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정할 것이다. 세계화는 경제적 불균형,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불평등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근본적으로 분석해보면, 잘 알다시피, 이것은 산업생산의 확대와는 다르다. 우리 당도 산업생산의 확대는 지지한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생산의 확대가 아니라 이윤의 확대다. 이윤은 선진국의 재벌기업이 가지고 있다. 현재 이윤의 확대는 이들이 자기의 이윤을 더 확대하려는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세계에는 개발도상국, 후진국, 선진국이 있는데 선진국은 겉으로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모두 발전하자고 하지만 결국 자국을 위해 나머지 국가들을 이용했을 뿐이다.

프랑스의 역사와 전통은 절대로 현재 정권이 미국정권이 하고 있는 정치를 따라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우리 국가의 공식명칭은 프랑스공화국이다. 더 상세히 하면 프랑스민주공화국이다. 이를 대표하는 사흐코지대통령은 프랑스민주공화국의 근본이념을 거스르고 있다. 사흐코지대통령은 인터뷰 등에서 말로는 지금 경제공황의 주역인 미국자본주의 지도자, 은행지도자들을 비판한다. 하지만 사흐코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흐코지의 경제정책을 분석해보면 이 병폐를 가지고 온 미국의 경제정책과 그 방향이 다를 바가 없다.

프랑스공산당은 인터내셔널당, 진정한 진보와 연대 선포

국제관계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당은 ‘인터내셔널’ 국제주의당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소련의 이념을 전수받고 3차 인터내셔널에 소속돼 이를 프랑스에서 이끌어온 당이다.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독일치하에 있을 때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당이고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연대정신을 주장하고 설득시켜온 당이다. 물론 이 정치노선이 전쟁이전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설득시킬 수 있었지만 현재 쇠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 정치노선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들이 오늘날 중요시하는 것은 이름만 진보주의, 진보정당, 진보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주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물론 현재 우리들도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움직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쿠바 혁명과 칠레혁명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는 옛날부터 공산당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아프리카

카대륙과도 깊은 동지적인 우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대륙중에서도 특히 불어권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불어권국가들의 진보운동 주역들은 프랑스로공산당의 이념을 전수받은 사람들이며 그중에는 프랑스로공산당의 당원들도 다수 있다. 불행히도 아프리카대륙이 정치적 위기를 많이 겪었고 희망하는 정치노선을 진행하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당은 신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을 지지해왔다. 반신식민주의 저항운동을 지지하면서 밀접한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시아대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과 같은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 반갑다. 지리적으로는 매우 먼 거리라고 할 수 있지만 아시아의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였고 우리 당은 그를 영웅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다.

황혜로 : 발제자에게 박수 부탁한다. 지정토론하겠다. 토론자는 김장민상임연구위원과 이상훈서울시당부위원장이다.

김장민 : 사회변혁을 위해 헌신과 투쟁을 멈추지 않은, 전통 있는 프랑스로공산당을 소개받아서 매우 영광이다. 아울러 깊은 애정을 갖고 프랑스로공산당의 이념과 역사를 설명해주신데 대해 뒤푸선생에게 경의를 표한다. 프랑스로공산당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비춰서 오늘의 프랑스로공산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먼저 프랑스로공산당은 아직도 혁명을 꿈꾸는 당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프랑스와 세계를 바꾸려는 당인가.

뒤푸 : 여전히 우리 당은 근본적인 공산주의혁명을 꿈꾸는 당이다. 그러나 공산주의혁명의 컨셉은 다르다. 지금 현재 사회상황에 적합한 그런 컨셉의 혁명을 꿈꾸는 당이다. 옛날 공산주의혁명과 같이 폭력이나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들이 혁명을 꿈꾼다면 단계적으로 반자본주의세력의 수를 늘려가는 것이다. 100% 무료의료시스템인 프랑스국가의료보험제도(Sécurité sociale)는 공산당운동의 결실이었다. 이러한 반자본주의운동을 늘려가면서 이것이 국가전체로 확대되면 그것도 혁명이다. 그런 방식으로 혁명을 벌일 것이다. 옛날과는 다른 방식의 혁명을 추구한다. 순간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진보주의를 선거 때마다 주장하는 당과는 달리 전통적인 진보주의를 주장하며 전통적 진보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들의 지지율을 늘려가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말하는 혁명정신, 혁명이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자본주의체제를 이겨나가는, 대항하여 승리해나가는 모습으로 사회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미지 쇠퇴와 젊은층의 지지가 프랑스로공산당의 당면 과제

김장민 : 두번째로, 추측하건데 프랑스로공산당이 프랑스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영웅스러운 투쟁을 해왔지만 이제는 오래된 정당, 힘이 없는 정당이라고 각인되고 있을 수 있다.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정열과 이상을 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꿈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뒤푸 : 말씀처럼, 프랑스로공산당이 지금 쇠퇴하고 나이 많은 늙은 당이라고 여기는 것이 실제 사실이고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 우리 당의 현 당면과제 중 하나다. 지금 프랑스로공산당의 이미지가, 지지자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세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튀마니떼축제를 보면 알겠지만 젊은이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에 우리도 힘을 얻어서 이미지쇄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3년전 프랑스에서 '프랑스로공산당 부모를 가진 행운이 모두에게 있지는 않다'는 제목의 영화가 인기를 모았다.

젊은층의 다수가 지지하지는 않는다. 최근 30년동안 여러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실망, 변화과정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등의 여러 이유로 공산당의 정책이 젊은이들에게 매력을 얻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젊은층의 입당을 적극 환영한다. 그리고 지도층을 많이 쇄신하지는 운동이 당내에서 일어나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물러나고 우리도 바꾸자고 해서 나도 물러났다. (청중 웃음) 공산당에서도 젊은 당원들을 많이 인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성공적인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평가로는 젊은 당원들의 문제점도 있다. 야망도 좋지만 공산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당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당인데 젊은 당원들은 너무 빠른 결과, 빠른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그에 대해 내 개인적 생각에는 경험적인 문제가 많은 것 같다.

대선에서 좌파의 패배는 사회당의 좌파정책 변질 때문

이상훈 : 나 또한 귀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경의를 표한다. 발제 잘 들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실질적인 얘기로 내년엔 프랑스에서도 지방선거가 있고 한국에서도 지방선거가 있는데 좌파가 20개 헤지옹정부를 실제로 운영했고 그 중 18개 지역에서 공산당이 집행단위에 참여하고 책임졌다고 했는데 결국 현재의 사흐코 지정부를 낳았다. 이런 지방정부의 운영이 왜 대선에서의 지지까지 이어지지 못했는가?

뒤푸 : 그렇게 된 제일 큰 책임은 사회당에 있다. 그 이유를 몇가지 밝히면, 프랑스 사회당이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회민주당(SPD)과 다른 점은 영국의 노동당, 독일의 사민당은 좌파로서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사회당은 모순적인 정책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이다. 사회당은 1983년 이후 정권을 잡으면서 말로만, 연설과 인터뷰로만 항상 대단한 진보주의정책, 전통적인 진보주의정책을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된 정책은 그와 달랐다.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이다. 사회당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14년동안 집권했는데 1995년 이후로는 대선에서 그냥 패배가 아니라 대패했다. 2002년 대선에서 사회당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전통적인 정치노선과 단일화된 사회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주장과 정책을 펼치는 대신에 선거에서 패배할까봐 중도정당들과 손을 잡으면서 말과 행동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2년 대선에서 시락이 이겼는데 그것은 시락의 정치적 힘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당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2002년 대선결과에 국민들이 너무 놀라서 2004년 지방선거에서는 좌파에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사회당은 여기서 교훈을 찾기는커녕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줬다. 그래서 결국 2007년 사흐코지가 집권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정치역사를 보면 우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회운동이 활발했고 노동운동이 강했다. 전통적으로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사회운동의 규모와 수가 적어졌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좌파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노동운동에서는 지역정부가 노동자들을 대표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운동이 약해졌고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패배하게 됐다.

이상훈 : 민주노동당도 2004년 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면서 약진했지만 대안정당으로서 집권 이후의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이후 총선에서 성적이 부진했다. 민주노동당의 부진은 분당과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새로운 세계의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본다. 대안사회의 모델을 실질적으로 찾고 집권했을 때 그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공산당의 집권경험과 대안사회의 모델들에 대해 교류하고 싶다.

뒤푸 : 동감한다.

사회주의자들을 설득해 힘을 합칠 수 있다

이재연 : 설명 잘 들었다. 말씀을 듣자니 사회당이 같이 대화할 상대가 못되는 것 같다. 조직으로써의 대화가 있고 개인과 개인의 대화가 있는데 다른 조직의 개인 몇사람이 믿을만하다면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조직과 조직의 대화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뒤푸 : 사회주의자는 사회당 당원일수도 있고 일반사회주의자일수도 있고 일반단체의 활동가이거나 성원일수도 있다. 사회주의자 일부가 공산당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설득해 선거에서 힘을 합치자는 전략이다. 물론 사회당과의 선거연합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선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NPA(반자본주의신당)와의 차이점인데 NPA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좌파내에서 NPA는 이단자로 불린다. NPA는 무투표운동을 하면 했지 사회당과도 공산당과도 절대 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당은 완전히 문을 닫고 있지 않다. 그 점이 NPA와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다.

김대성 : 산업발전에 따라 새로운 계급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산업변화에 따라 화이트칼라나 서비스업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가입시키려는 노력을 했는지, 청년들과의 세대교체를 하려고 했는지에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했는지 이것이 첫번째 질문이다. 두번째 질문은 뤼마니페도 있지만 공산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 방송 등 언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들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뒤푸 : 당연히 금융계를 비롯한 산업혁명과 발달에 따라 새로 등장한 화이트계층을 설득시키고 공산당노선을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68' 이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힘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고 그 노력이 화이트계층에 먹혀들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19세기 파리코뮌의 중심을 이룬 이들은 모두 탄광노동자들이던가 파리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등장한 화이트칼라의 목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것이어서 자본주의와 가까웠다. 그래서 공산당의 이념으로 화이트칼라를 설득시키는 것은 정치이념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좌파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조덕원 : 시간상 간단히 질문하겠다. 올해 유럽의회선거에서 좌파당과 좌파전선을 결성했는데 더 나아가 통합할 뜻이 있는가?

뒤푸 : 있다

조덕원 : 이번 유럽의회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공산당과 사회당이 손을 잡을 것인가.

뒤푸 : 공산당의 정책과 사회당의 정책이 동일하다면 왜 합치지 않겠는가. 같은 정책을 위해서 손을 잡을 의도가 전혀 없지 않다.

조덕원 : 남코리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노동총동맹(CGT)이 왜 공산당과 분리되었는가?

뒤푸 : 역사적으로 보자면 CGT는 공산당 이전에 건설됐으며 독립적인 단체다. 인민전선이 성립되면서 CGT 성원들이 공산당에 가입해 이 두 단체간의 관계가 형성됐다. 그러나 CGT의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산당 노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에 관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게 됐다. 그래서 CGT와 공산당의 견해와 입장이 달라졌다.

조덕원 : 공산당 정치국, 의원 중 노동계급출신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뒤푸 :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 전통적으로 당수는 모히스 또레스, 조르주 마살처럼 대부분 모두 노동자들이다. 이것이 전통이었는데 현재 당수나 지도부는 대학공부를 한 인텔리들을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계급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당수 마리 조제 뷔페도 노동자출신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가정 출신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의원 중에 몇몇은 노동자출신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당이 순수 노동자당이기에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당원이 되길 바란다. 한편 교육계출신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교육계출신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중등교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원이었다.

한호석 : 언제 집권할 것인가?

뒤푸 : 국민들의 이념자세를 변화시키고 공산당이념을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정권을 잡는 것이 꿈이다. 대통령이 안되더라도 지배적인 세력이 된다면 좋겠다.

황혜로 : 귀한 시간을 내준 뒤푸에서 박수 부탁한다. 오늘 하루 프랑스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 공산당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수고한 김장민연구위원과 이상훈부위원장에게도 박수 부탁한다. <끝>